

# 의료용 대마 완전 국산화 나선다

### 전북대, LED식물공장 재배·원광대는 생리활성 평가 전북테크노파크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선정

올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의료용 대마는 전무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100%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용 대마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

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국가 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제안 과제는 'LED식물공장을 활용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생리활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이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뇌전증 뿐 아니라 치매 등의 치료제로서도 기대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를 국산화할 계획이다.

대마의 환각성분을 줄이고 치료 성분을 늘려 생리활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의료용 대마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북대 LED 식물공장이 재배·생산한다. 원광대는 한약학과를 중심으로 생리활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원광대 기지에 교수는 "이 기술개발 사업을 전라북도가 의료용 대마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고품질 의료용 대마 생산의 기반을 갖추면, 지역 기업

등과 함께 의약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북대 LED식물공장 운영을 맡고 있는 홍창희 전북대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장은 "전북대 LED 식물공장은 기후나 병충해에 관계없이 맞춤형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같은 지역에 소재한 두 대학이 합심해 전북 의료를 의료용 대마의 거점으로 만들고, 실증을 위해 새만금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드론교육 재능기부 호응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지적토목학과에서는 16일 정읍애육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드론교육 재능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에서 보육 및 아동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6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직업 찾기, 드론 조종, 영상촬영 및 영상제작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애육원 어린이들

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미래 신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지적토목학과 재학생들과 함께 드론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이근상 교수는 "저희 학과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이 드론, 3D프린팅, 공간정보 등 다양한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번 애육원 어린이들에게 드론 재능기부 교육을 하게 됐으며 이러한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가 16일 정읍애육원에서 드론교육 재능기부를 실시했다.

관련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는 2019년에 지적직공무원 1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기업에 7명 합격 등

전라북도 토지정보 및 지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공무원·공기업 사관학사로 거듭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가 지난 14일 글로벌에듀센터 주최로 G Suite for Education, Jump Start 교육을 실시했다.

## 전주비전대,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 교육 실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4일 글로벌에듀센터 주최로 G Suite for Education, Jump Start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교직원, 고교 선생님 및 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국내 최초 여성 이노

베이터 주디 김(헨즈인헨즈 연구소) 소장이 Google Tools 사용 방법 및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G-suite for Education Jump Start 교육은 최근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라이

브, 사진, 프레젠테이션, 캘린더, 유튜브, 구글맵, 설문지, gmail 등 다양한 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이다. 교육 결과에 따라 구글 인증 교육자 시험을 통해 레벨 1, 레벨 2, 트레이너, 이노베이터 등 4단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상급인 한국인 이노베이터는 현재 4명이 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지영 글로벌에듀센터장은 "미래 교육은 언제 어디서

든 누구와도 자유롭게 협업을 통한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로, 오늘 진행한 G Suite 교육을 통해 국내 유일의 글로벌 구글 거점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비전대학은 2017년 이후 구글 G-suite for Education 인증대학으로 다양한 구글 툴을 무제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 영생고, 태권도 명문 재도약

### 강원도 태백서 열린 전국대회서 금메달 목에 걸어

16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영생고 태권도부가 최근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1997년에 창단한 영생고 태권도부는 그간 각종 대회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며 태권도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우석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2014~2015),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2014) 등을 비롯해 이선기(현 전주시청)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데 울타어 다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김두환(3년)은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8강전까지 김두환은 RSC 승리 행진을 펼치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RSC는 점수 차가 10점 이상 벌어 지거나 상대 선수가 겨투기를 속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이 직권으로 중단하는 경기를 뜻한다. 또 손태환(1년)도 지난 7월 요르단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태환은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중이며 전도유망한 선수이다. 조재섭 영생고 태권도부 감독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도 상위권 입상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김상욱 교수 초청 '다정한 물리학' 강연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전북도교육청을 찾는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욱 교수 초청 8월 전북교육아카데미가 오는 29일 오후 7시 분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별립과 울림을 말한다-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 세상, 인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론물리학 관점으로 본 우주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우주의 무한성과 과학의 신비로움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면서 우주와 세상,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상대론적 혼돈 및 혼돈계의 양자 국소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포스텍, 카이스트, 독일 막스-플랑크 복합체 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BK 조교수,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를 거쳐 2018년부터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의 양자 공부',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싫다', '별립과 울림'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전입희망자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본청에서 근무할 교육행정직 전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의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탁하고자 교육행정 7~8급 전입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7급은 현 직급 경력 5년 이내인 사람, 8급은 해당 직급 1년6개월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을 희망하는 교육행정직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 주요업무실적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평가 20%, 면접평가 80%로 진행된다. 서류평가에서는 근무태도·업무실적·적극성·비전, 면접평가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다. 최종 전입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오는 9월 16일자에 맞춰 인사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